

***미궁과 미로의 구성원리 분석을 통한 현대 건축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through the Compositional Principle in Labyrinth and Maze

- Focused on the Exhibition Space -

임종엽* / Lim, Jong-Yup
김윤겸** / Kim, Yun-Kyeom

Abstract

In contemporary society, Labyrinth and maze are used with the same meaning. They are also used by translating various meanings. But labyrinth and maze are exactly different mea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about difference for understanding essential meaning between labyrinth and maze. First of all, this study is to grasp composition princip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through example of labyrinth and maze from ancient to contemporary, prescribe about essential meaning between labyrinth and maze and examine contemporary architecture which is fit for essential meaning. As compositional Principle in labyrinth and maze applied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labyrinth are centrality, property of one-sidedness, determinable space, on the contrary the maze are out of centrality, property of multi-sidedness, indeterminable space.

Finally, The aim of this paper is analyze exhibition space that suit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position principle and find the characteristics in labyrinth and maze. Examples of exhibition space are Aldo Van Eyck's 'Sculpture Pavilion', Kazuyo Sejima's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Ben van berkel's 'Museum Het Valkhof'. These research are studied the visitor's circulation and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n exhibition space with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compositional principle in labyrinth and maze.

키워드 : 신화(Myth), 미궁(Labyrinth), 미로(Maze), 전시 공간(Exhibition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은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막연한 가치를 다양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대인들이 최근 미궁과 같은 강렬하게 중심을 지향하는 존재에 이끌리고 있다. 그러나 흔히 미궁이라는 말에서 상상하는 것은 질서나 이성과는 반대되는 혼돈의 극치라는 이미지를 지닌 어떤 공간이다. 현대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그러한 장소 혹은 상태를 미궁이라 부르는 습관이

정착해 있다. 그러나 뜻밖에도 미궁은 그러한 카오스적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다. 미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수준 높은 계산과 이성적 질서인 것처럼 미궁에는 어떤 종류의 일정한 구성원리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계속 부여해온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미궁의 본질은 혼란을 의미하지도 뒤엎킨 통로와 막다른 길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미궁은 미로와 달리 중심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전체로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엄밀한 규칙성을 요구한다. 중앙을 향한 지향이라는 본질적 부분이 없거나 모자란다면, 그것은 이미 미궁이 아니다.

또한 미궁과 미로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미로라는 한 단어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고전적 미로의 구성은 간단하고 하나의 길을 따라 계속가면 언젠가 중심에 도달하고, 거기서 뒤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 이 논문은 2004년도 인하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돌아 걸으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근대적 미로는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매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구와 출구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이다.¹⁾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 미로는 미궁(Labyrinth)으로 근대적 미로는 미로(Maze)와 흡사하다. 이처럼 현대에서는 미궁과 미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현대에서 미궁이 아닌 미로가 현대 디자인의 요소로 관심을 갖는 것은 '중심의 상실', 혹은 '전체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현대인이 처한 '의지할 곳 없음'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란스럽기만 한 이러한 미궁과 미로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현대 건축공간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규정하고 미로의 현대적 공간 활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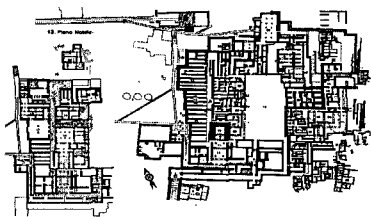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스 신화의 미궁에서부터 시작되는 본 연구는 우선 미궁(Labyrinth)과 미로(Maze)의 특성을 파악하고 형성 방법을 모색한다. 비교, 분석을 통해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현대에서 미궁과 미로의 개념적 속성 차이를 규명한다.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구성원리와 중세,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구성원리를 분석하면서 진행된다. 특히 시대별, 유형별 미궁과 미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구성원리에 대한 다양한 공간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공간특성의 분석을 토대로 미궁과 미로의 구성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공간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로는 이러한 공간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현대 건축 및 실내 공간에서 이런 특성이 적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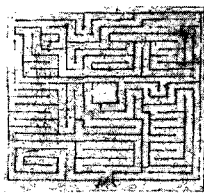
2. 미궁과 미로의 본질적 의미

2.1. 미궁과 미로의 본질적 의미

미궁(Labyrinth)라는 말 즉 'Labyrinthos'의 어원은 아서 에번스에 의해서 발굴된 크노소스(Knossos) 궁전에서 유래하였다.²⁾ 크노소스 궁전에는 '양날도끼'가 벽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그림 1> 크노소스 궁전



<그림 2> 조반니 폰타나의 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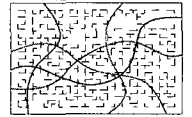
에 많이 그려져 있었고 궁전의 내부가 수많은 구불구불한 복도와 저장실로 통하는 막다른 길, 작은 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전부터 라브리스(Labrys)는 '양날도끼'를 뜻했기 때문에 라버린토스(Labyrinthos)는 '양날도끼의 집' 즉, 크노소스 궁전을 의미한다는 설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유래에서 비롯된 미궁의 의미가 현대에서 '복잡하게 뒤얽힌 통로를 가진 구조'라는 의미를 떠올리는 습관이 생기게 된 원인은 1420년 조반니 폰타나에 의해서이다. 전쟁기계와 관련된 개인 메모와 같은 도록집인 '전쟁도구의 책'에서 미궁도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미로도도를 그렸다. 전쟁 중에도 적에게 공격당하더라도 적이 중심부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요새를 구상했다.³⁾ 이는 다양한 목적지를 가지면서 중심이 여러 개 존재하는 미로의 특성과 일치한다. 여러 갈래 길의 미로를 그리고, 그 그림에 미궁(labyrinth)라는 글자를 적어 넣으면서 미궁과 미로는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로도 계속 미궁도의 전통에서 미로도도가 출현하였고, 미궁이라는 명칭으로 미로를 상상하는 모순이 생겨나고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2.2. 미궁과 미로의 개념

미궁의 본질적 의미는 미로와 함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미궁(Labyrinth)은 단일한 원을 이루는 외줄기 길이고 무조건 중심을 향해 이끌어 간다. 중심에서 밖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르게 미로(Maze)는 여러 개의 곡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중심에 이르는 것을 가능한 한 곤란하게 해서 중심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미로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해도, 거기서 다시 출구로 빠져나오는 것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미로에는 중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다른 목적지라도 상관없고, 나아가 그 목적지조차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표 1> 미궁과 미로의 형태 비교

	원리	형태
미궁(Labyrinth)	단일 원	
미로(Maze)	여러 개의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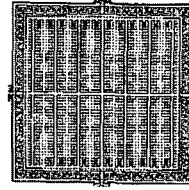
즉 미궁과 미로는 전혀 다른 원리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미로와는 달리 미궁은, 일정한 구조에 의해 중심이 은폐되어

1)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3, 휴머니스트, 2004, p.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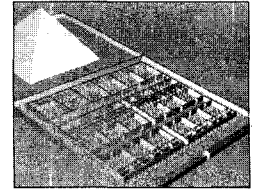
2)아서 에번스에 의해 제기된 미궁의 어원이 가장 유력한 설이지만 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른 유래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3)이즈미 마사토, 오근영 역, 우주의 자궁 이야기, 뿌리와 이파리, 2003, p.45

있기는 하지만 중심으로 가는 외줄기 주회로를 지나 누구나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다. 미궁 안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 사람은 미리 설정된 구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중심을 향해 좋은 싫든 무조건 걸어가야 한다. 미궁에서는 중심에 이르는 의미는 물론이고 중심에 이르는 과정, 다시 말해 사람이 중심으로 향한 길을 나아가는 행위의 의미도 중요하다.



<그림 3> 아메넬헤트 3세의 미궁 평면도



<그림 4> 이집트 미궁의 가상 복원도

2.3. 미궁과 미로의 특성

미궁과 미로의 형태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 각각 존재한다. 우선 미궁 도형은 공간과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⁴⁾

- ① 통로가 교차하지 않는다.
- ② 방향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 ③ 항상 같은 형태로 방향전환이 반복된다.
- ④ 미궁의 내부 공간 중 어느 한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통로가 나 있고, 미궁을 걷는 자는 내부 공간 전체를 남김없이 걸어가야 한다.
- ⑤ 미궁을 걷는 자는 중심 옆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지난다.
- ⑥ 통로는 외길이고 무조건 중심을 향해 나 있다. 따라서 내부를 걷는 사람은 길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
- ⑦ 중심에서 외부로 나올 때 중심을 향해 들어왔던 통로를 다시 지나가야만 한다.

이런 특성을 갖는 공간이 미궁이다. 그리고 이 특징을 모두 부정하면 미로가 된다. 이처럼 미궁과 미로는 지극히 분명한 대립적 원리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미궁의 시대별 분석

미궁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소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던 미궁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 아리아드네 공주가 준 실타래를 들고 들어갔던 곳이 바로 크레타 대미궁인 것이다.⁵⁾ 그러나 이 미궁처럼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궁 건축물이 아니라 미궁의 도형뿐이다. 따라서 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의 시대별 분석은 미궁도를 근거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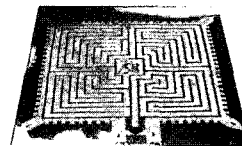
3.1. 고대 미궁

(1) 이집트 미궁

고대 지중해 세계에는 크레타 대미궁만이 알려져 있었던 건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이집트 대미궁은 기원전 2세기 전

이집트의 왕 아메넬헤트 3세에 의해 건설되었다. 1888년 정확한 위치를 발견한 프리러스 페트리 교수가 기초부를 조사하여 주위가 천미터 이상이었다고 추정했다. 지붕이 딸린 12개의 안뜰이 있고, 북쪽에 6개의 안뜰, 남쪽에도 마찬가지로 6개의 안뜰이 배치되었으면 어느 안뜰이나 다른 안뜰과 통하고 있고, 전체가 하나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3천 개가 넘는 방은 절반이 지상에 나머지 절반은 지하에 마련되어 있으며, 역대 왕들의 무덤이 있었다.⁶⁾

(2) 로마의 모자이크 미궁



<그림 5>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모자이크 미궁

고대 로마에서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기원전 2세기경부터 5세기가 지 고도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기하학적으로 디자인된 미궁 무늬가 건물 바닥의 장식으로서 등장하였다. 이 미궁 무늬를 사각형 타일의 모자이크처럼 마주 붙여 만들었다고 해서 '모자이크 미궁'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모자이크 미궁이 장식으로서 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개는 사각형이지만 원형도 있다.
- ② 가장자리가 망루를 갖춘 푼니 모양의 벽을 나타내는 성벽 무늬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다.
- ③ 모자이크 미궁은 사각, 원형을 불문하고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 ④ 중심에 도달하려면 이 네 구역을 모두 지나가야 한다.
- ⑤ 중심으로 가는 길은 외길이고, 교차로나 막다른 곳이 없다.
- ⑥ 문이 네 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하나가 열려져 있으면 그것이 출입구다.

모자이크 미궁의 구성원리는 출입구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중심까지는 외길이다. 하지만 네 군데로 나누어진 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례로 통과하여, 강제로 중심부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모자이크 미궁이 용도는 우선 건축 내부공간의 장식이다. 그리고 모자이크 미궁이 문지방(Liminality)⁷⁾으로

4)이즈미 마사토, op. cit., pp.42-43, 미궁 연구자인 헤르만 케른(Hermann Kern)의 저서 '미궁'에서 정리한 내용을 재인용.

5)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2000, pp.28-37

6)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이곳을 방문하여 서술한 내용.

7)라틴어 Limen의 명사형으로 주변 혹은 전이역의 의미로 두 영역간의 중간상태를 말한다.

로서 현관 같은 외계로부터 내부공간을 지키는 위치에 설치되어 내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3) 치석미궁

기원전 600년경으로 추정되는 트라리아텔라의 와인단지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기마병들이 ‘트로이 유회’나 ‘트로이 경기’로 불리는 모의전투시합이 그려져 있다. 그림 안에는 트로이라는 문자가 역방향으로 적혀있고 이러한 행위는 사자(死者)송배의 의례와 도시 창건의 의례 때문에 일어났다. 도시 창건의 의례로서 트로이 유회는 미궁도가 지닌 수호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트로이 유회로 도시창건 의례가 펼쳐진다는 것은 도시 안의 공간이 신성한 것이며 더러워진 도시 밖 공간과 종교적으로 구별 지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트로이 성의 굳건한 수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트로이 성이란 북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치석미궁의 총칭이다. 치석미궁의 형태는 보통 크레타형 미궁을 기본으로 한다.⁸⁾ 이러한 장소 중 몇 곳에는 지금도 성대한 행렬이나 춤 파티가 열리고 있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6> 스웨덴의 치석미궁

이 성이란 북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치석미궁의 총칭이다. 치석미궁의 형태는 보통 크레타형 미궁을 기본으로 한다.⁸⁾ 이러한 장소 중 몇 곳에는 지금도 성대한 행렬이나 춤 파티가 열리고 있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3.2. 중세 미궁

미궁은 고대 로마에서 중세 유럽으로 전승되었다. 중세 시대 종교인 기독교에 의해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미궁 이미지에 부여되었다. 중세 유럽의 미궁은 주로 수도승들이 사본에 그린 ‘사본미궁’과 건축가들이 주로 교회의 회랑부(문에서 제단으로 이르는 중앙부)에 타일로 만든 ‘교회미궁’으로 나누어진다.

(1) 사본미궁

중세 유럽의 사본에 그려진 미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크레타형, 오프리트형, 샤르트르형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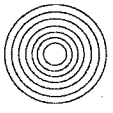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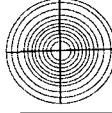
크레타형 미궁은 일곱 겹 주회로를 가진 미궁이다. 원형의 도입과 정확하게 계산된 중심으로의 집중은 미궁이 기독교적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로부터 전승된 이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프리트형 미궁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의 크레타형 미궁의 일곱 겹 주회로를 열한 겹 주회로로 확대한 데 있다. 주회로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특징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 미궁의 특징인 샤르트르 미궁에 영향을 미쳤다.

샤르트르형 미궁은 사본미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형의 미궁이다. 이 유형의 미궁은 오프리트형과 마찬가지로 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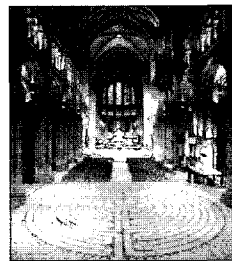
겹 주회로를 갖고 있는데, 이와 함께 미궁에 십자가 모양이 더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십자가를 넣은 형식과 함께 동심원 모양의 형상을 채택함으로써 고대적이고 이교적인 크레타형 미궁에서 최종적으로 이탈하여 기독교 미궁의 유형으로 완성되었다.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에 처음으로 현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미로의 의미를 지닌 미궁도가 등장하였다. 조반니 폰타나가 미궁도 역사상 첫 미로 미궁, 즉 외길 미궁이 아니라 막다른 길이나 교차로를 갖춘, 사람을 현혹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로를 만들어냈다. 그 뒤로 미궁 표상의 세속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샤르트르형처럼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미궁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2> 사본미궁의 구성원리 특성

	크레타형	오프리트형	샤르트르형
구성원리	일곱겹	열한겹	열한겹 + 십자가
성향	고대 로마	과도기	기독교
시기	8C 중반	9C - 10C	10C - 15C
형태			

(2) 교회미궁

교회미궁은 중세 유럽의 교회 바닥이나 벽 등에 그려졌다. 바닥에 그려진 교회미궁의 형식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북부와



<그림 7> 교회미궁, 샤르트르 대성당



<그림 8> 샤르트르 대성당의 18세기 재현도

중부에서는 고대 로마의 모자이크 미궁을 모델로 하는 모자이크 미궁형과 북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신자가 그곳을 걸을 수 있는 크레타형을 변형해 만든 주회 미궁형이 주를 이룬다. 순수하게 장식적 미궁인 열한 겹 주회로의 샤르트르 미궁의 크기는 지름이 3~4미터이고 실제로 신자들이 걸었다고 전해지는 주회 미궁의 크기는 10~12미터이다. 신자들이 걸을 수 있었던 주회 미궁은 거의 정사각형의 흰색과 검은색 타일로 주회로와 주회로를 구분 짓는 경계선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교회미궁이 갖는 특성은 교회 내부의 제단을 향하기 전에 신자들은 입구에 설치된 미궁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신자들에게 죽음과 현세의 죄를 마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현세의 상징이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과 재생의 의사체험을 신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교회미궁이 지닌 최대 의미이다. 더럽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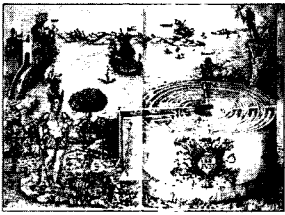
8)이즈미 마사토, op. cit., pp.98-107

9)Ibid., pp.110-121

현세의 길을 헤매면서 영혼을 정화하는 길의 특성도 내재하고 있다.¹⁰⁾

3.3. 르네상스 미궁

미궁은 15~17세기 유럽 화려한 예술을 매개로 하여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시대의 특징은 15세기에 도상(圖像)의 영역에서도 미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 지향성을 지닌 중세 유럽의 미궁 형상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고대 로마의 모자이크 미궁 양식이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5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평면적인 2차원의 미궁이 3차원의 입체감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궁은 침묵의 장소로서, 즉 지켜야 할 침묵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르톨로메오 베네도의 젊은 남자의 초상화 그림을 보면 가슴 부분에 그려진 미궁은 바로 주인공이 마음의 비밀을 봉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미궁은 당과끼리 다들 때 상태를 공격하는 혹은 다름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은유적 도구로도 자주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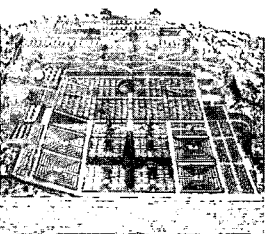


<그림 9> 최초의 3차원 미궁

베네도의 젊은 남자의 초상화 그림을 보면 가슴 부분에 그려진 미궁은 바로 주인공이 마음의 비밀을 봉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미궁은 당과끼리 다들 때 상태를 공격하는 혹은 다름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은유적 도구로도 자주 이용되었다.

3.4. 르네상스 후기 미궁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융성했던 대규모 정원 형식인 기하학적인 선을 특징으로 하는 정원을 정형정원 또는 기하학식 정원이라고 하는데, 형식의 특징은 한가운데로 곧게 뻗은 주축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양쪽이 거의 대칭으로 되어 있다. 정형 정원은 미궁 형식과 흡사하다. 건축가들은 미궁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형식의 변형을 만들어냈다. 미궁을 정원 형식에 도입하면 그곳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고 또 사랑의 미궁으로서 비밀스러운 용도로도 활용할 수 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궁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기하학적 모양은 왕후귀족의 화려한 정형정원에 적합하였다. 실제로 정원미궁이 거의 울타리미궁이었기 때문에 정원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틀을 충실하게 현실화할 수 있었다.



<그림 10> 티블리의 정원미궁

정원미궁의 계획안은 시대적으로 외줄기 길의 모자이크미궁이 차츰 복잡한 미로미궁으로 변모해갔다. 정원미궁이 왕과 제후들의

요청에 따라 장식성을 강화해갔고 시대에 뒤떨어진 모자이크 미궁의 무늬는 점점 포기하고 기하학적 무늬는 갈수록 더 복잡해져갔다. 이와 함께 형식의 우아한 아름다움에도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외줄기 길의 모자이크 미궁에서 더욱 자유로운 미로형으로의 변화는 오로지 유희를 위해 설치되고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4. 미궁과 미로의 비교 / 분석

4.1. 미궁의 유형별 분석

지금까지 고대부터 르네상스 후기까지 미궁과 미로의 특성을 형태와 공간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주목할 만 점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3차원의 미궁이 등장하였고, 현대에서 사용되는 미로의 의미는 15세기 미궁인 사본미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표 3> 미궁의 유형별 특성

	차원	성격	공간특성	형태
이집트 미궁 (에메네펠트 3세 미궁)	2차원	주거 + 무덤		
모자이크 미궁 (크네모나 미궁)		장식		
치석 미궁 (트로이 성)		의례 + 수호		
사본 미궁 (에리코 미궁)		의식 + 종교		
교회 미궁 (샤르트르 대성당)		정화 + 장식		
르네상스 미궁 (헵프톤 궁정)	3차원	은유 + 유희		
정원 미궁 (베르사유 궁전)		변형 + 유희		

4.2. 미궁과 미로의 공간특성 비교

미궁과 미로에서 나타나는 공간특성을 정리한 결과 현대건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는 미궁은 중심성이 있고 일방향성이면서 확정적인 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로는 그와 반대로 다방향성이면서 중심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불확

10)W. H. Matthews, MAZES AND LABYRINTH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Dover, 1970, pp.5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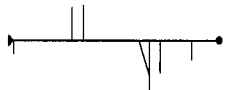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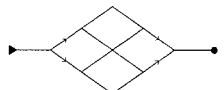
정적인 공간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미궁과 미로의 공간특성에서 나타나는 건축요소를 현대 건축에서 고찰하는 키워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미궁과 미로의 현대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성 비교

미 궁 (Labyrinth)	미 로 (Maze)
일방향성	다방향성
중심성	탈중심성
폐쇄성	개방성
확정동선	기변동선
집중화	파편화
강제성	자유성

미궁과 미로를 현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미로라는 한 단어로 종합하여 고전적 미로와 근대적 미로로 구분하여 볼 때 건축 공간에서 입/출구와 경로 선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비교되어진다.

<표 5> 고전적 미로와 근대적 미로의 경로 선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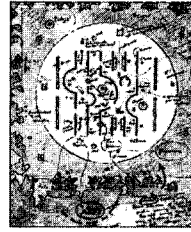
구분	고전적 미로	근대적 미로
입 / 출구	1개	2개 이상
경로선택	벽체 구조에 따라 경로 선택시 계획된 우연	관람자가 경로 선택시 다양한 선택을 강요
경로 구조		

지금까지 살펴본 미궁과 미로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공간을 제대로 인식하기 힘들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공간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고 본질적 의미는 현대건축공간에서 구성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전시공간의 관람객 동선을 중심으로 미궁과 미로가 나타나는 현대 건축 공간을 알아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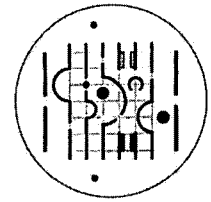
5. 미궁과 미로의 원리가 적용된 건축 공간

5.1. 아르헨 조각 파빌리온(Sculpture Pavilion, Arnhem)

아르헨 조각 파빌리온(Sculpture Pavilion, Arnhem, 1966)은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의 가장 순수한 작업 중 하나이다. 알도 반 아이크는 '미로적 간결함'이라는 말로써 자신의 건축 개념을 설명했다. 이 조각 파빌리온의 평면도는 문자 그대로의 미로가 아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길'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외부로부터 폐쇄되어 있지도 않으며 더욱이 길을 읽을 염려가 전혀 없는 개방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작은 건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평면도가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형상적으로나마 미로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밝은 빛 아래 동일한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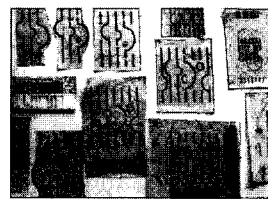


<그림 11> 배치 스케치



<그림 12> 평면도

의 여섯 개 평행하는 벽들은 폭 2.5m 미만인 다섯 개의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에서 복록하고 오목한 공간의 소용돌이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공간이 평행하는 벽에 수직으로



<그림 13> 계획과정에서 보여지는 미로 스케치들

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부로 들어 갈 때 그 공간의 풍요로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에서는 벽안에 개구부로 근접하는 도로의 옆면, 외부의 자연뿐만 아니라,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이 건물의 놀라운 전망은 반복적으로 조각적인 면과 상호 보완적인 면을 보여준다. 사람들과 조각가들은 서로의 주변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14> 내부 공간

알도 반 아이크는 아르헨 조각 파빌리온을 통해 '도시, 꿈, 상상과 같은 이상적이면서 미로적인 공간'을 의도하고 있었으며, 조각 작품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우연한 마주침과 발견, 놀라움, 호기심, 그 뒤로 이어지는 정서적인 교류, 다시 말해 도시 공간에서의 우발적인 경험들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옥외의 전시를 위한 파빌리온으로서 온전히 구획된 실내 공간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는 내향적인 공간 경험이 디자인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미로의 공간 개념과 일치한다. 더욱이 관찰자의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전시장 프로그램의 속성에 비추어 이 조각 파빌리온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지시하지 않는 점은 확실히 미로의 내부공간에서 일어나는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의 경로들과 흡사하다. 이 전시장에는 심지어 '이곳을 기점으로 출발하라'는 지시, 즉 뚜렷이 정해진 관습적인 '입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¹¹⁾

11) 봉일범,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06 미로, 시공문화사, 2005, pp. 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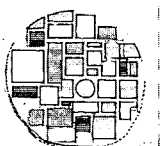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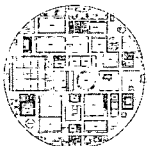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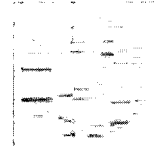
5.2. 21세기 현대미술관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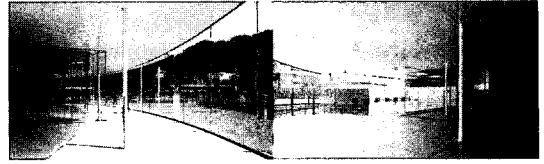
가즈요 세지마(Kazuyo Sejima)의 21세기 현대미술관(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4)은 대지는 수많은 종류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장소, 즉 역사적인 구역, 문화적인 구역, 지방 행정기관이 있는 구역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한군데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성적으로 구성된 가운데 보행자의 통로와 방향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미로의 구성원리에서 나타나는 기본 원리와 같이 세지마는 방문자들의 움직임과 순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자 의도하였다.

원의 형태를 이루는 건물의 외관은 어떤 방향에서나 똑같이 건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면과 후면이 따로 없으므로 경계는 주변의 환경을 향해 동등하게 개방된다. 원이 갖는 안정적인 기하학은 확고하면서도 독립적인 형태이다. 기능적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이 원형의 건축이 개방성과 이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복도는 공원의 보행로와 같이 우리는 내부와 외부에 다양한 종류와 크기, 효율을 갖는 통로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들 자신만의 경험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다. 등질의 사각형으로 분할된 복도의 배치는 내부에서 의도된 방향성을 상실시키고 관람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¹²⁾

<표 6> 다이어그램 - 도면 - 모형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도면	모형
		

<표 6>은 세지마의 공간다이어그램, 드로잉, 스터디 모형을 보여준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드로잉까지 아주 직선적인 방식의 구축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도면은 직선적이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관람객의 경로 형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의도적인 다이어그램 도면을 통해 관람객의 경로는 더욱 다양해짐으로써 메인 개념인 매스와 오픈된 공원로서의 복도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러한 특징은 미술관 안과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의 유리벽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그 결과 이 원형의 유리벽에는 다양한 표면의 효과를 가지고서 미술관의 장소성을 만들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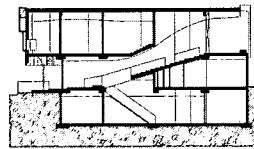


<그림 16> 미술관 내부

는 경계가 된다. 그러나 투명한 유리는 물리적인 경계없음을 나타냄으로써 내부에서는 외부 주변의 공원 풍경이 내부로 빨려들듯이 나타나고 내부의 관람객은 건물 안에 있지만 언제나 단절 없이 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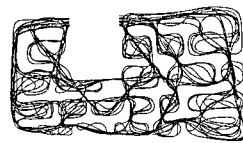
5.3. 발크호프 미술관 (Museum Het Valkhof)

수퍼마켓, 사원 그리고 사회적인 만남의 장소로 설명된 벤 발 버클(Ben van berkel)의 발크호프 미술관(Museum Het Valkhof, 1999)은 프로그램상으로 현대사회와 같은 이질적인 혼성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관람의 여정, 설치된 전시물들, 비어있는 벽면, 구조체, 그리고 밝고 어두운 방들의 혼합체로서, 이 미술관 프로젝트는 이들 구성요소들을 모든 것을 내포하는 구조의 효과적인 조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림 17> 미술관 단면도

발크호프 미술관은 주된 구조가 계단실과 천정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인 계단실은 미술관 앞의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위층의 발코니 부분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천장면이다. 두 요소는 함께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계단실은 건물의 구조적인 코어를 형성하며, 카페, 도서실, 미술관, 중앙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가치를 뽐내고 있다는 점에서 분배기와도 같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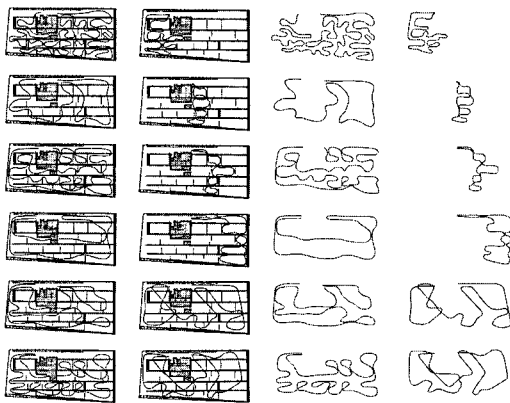
<그림 18> 동선 흐름도

미술관에 포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선의 규칙을 통해 하나의 연속체로 통합되고, 이는 기능적 공간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평면에서 프로그램들을 수평으로 배치되고, 수직적 동선에 의해 통합된다. 전시실 내부의 구성 역시 동선 다이어그램에 의해 그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미술관에서 가능한 모든 동선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각 개구부를 산출하고, 그 불규칙한 개구부는 전시실 내부의 수평적 칸막이에 의해 형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동선의 주체와 형성과정인데, 모든 동선들은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 선택되는 동선으

13)최정석, 건축표면이 형성하는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5, pp.56-58
14)Ben van berkel, Move, Publisher UN Studio & Goose Press, 1999, pp.240-266

12)El Croquis 121+122,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El Croquis, 2004, pp.60-119

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조건으로 내재하며 그것은 공간의 유동성을 뜻한다.





<그림 19> 미술관 내부 공간의 전시관람 동선

전시장 공간의 평면 계획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관람객 스스로의 자유로운 경로 선택을 미술관 계획에서 주요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그 결과가 작가 자신이 '미로'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미로의 공간 효과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건축가가 스스로 결정한 평면을 앞에 두고 그 벽면들 사이를 움직이는 관람객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로들을 하나씩 추적해가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이것은 불확정적인 공간의 경험이 다양한 동선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4. 미로의 원리가 적용된 현대 전시공간 비교

<표 7> 전시 공간의 특성 비교

작품	미로의 공간특성	성격
 아렌헴 조각 파빌리온 Aldo Van Eyck	개방성과 폐쇄성 확정동선 + 가변동선 블록/오목한 공간의 교차 내향적인 공간 구성 입구의 부재	고전적 미로
 21세기 현대미술관 Kazuyo Sejima	내/외부 공간의 개방성 중심성 다방향성 가변동선 행위의 자율성	근대적 미로의 변형
 발크호프 미술관 Ben van Berkel	프로그램의 이질적 혼성 불확정적인 공간구성 행위의 자율성 경로의 다양성	근대적 미로

15) 봉일범, op. cit., pp.52-54

각각의 전시공간을 비교하여 보면 공간특성상 미술관 관람객의 동선 결정과 경험선택과의 연결가능성을 통해서 현대 건축에서도 미로의 구성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건축공간에서 적용된 미궁과 미로의 구성원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 애매하게 사용되는 미궁과 미로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규정하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여 미궁과 미로의 특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미궁의 출발이었던 그리스 신화부터 르네상스 후기까지 미궁과 미로의 구성원리 및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본 결과 현대건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는 미궁은 중심성이 있고 일방향성이면서 확정적인 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로는 그와 반대로 다방향성이면서 중심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불확정적인 공간의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궁과 미로에서 나타나는 공간특성을 정리한 결과 이처럼 미궁과 미로의 공간 특성에서 나타나는 건축요소는 현대 건축을 고찰하는 키워드인 파편화, 탈중심성, 불확정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 건축공간에서 미궁과 미로의 적용 사례는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부 공간에서 관람자의 경로 및 건축구조상의 특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작품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려 하였다. 그 결과 미궁과 미로에 대한 개념이나 도면들이 건축적으로 응용되어 실내 공간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미궁과 미로의 본질적인 개념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발전 관계를 통하여 다양하게 현대건축과 접목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이론적, 실천적 탐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이즈미 마사토, 오근영 역, 우주의 자궁 이야기, 뿌리와 이파리, 2003
2.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2000
3.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3, 휴머니스트, 2004
4. 봉일범,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06 미로, 시공문화사, 2005
5. W. H. Matthews, MAZES AND LABYRINTH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Dover, 1970
6. Monique Mosser and Georges Teyssot, The History of Garden Design, Thames and Hudson, 1991
7. Vincent Ligtelijin, Aldo Van Eyck Works, Brikhäuser, 1999
8. El Croquis 121+122,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El Croquis, 2004
9. Ben van berkel, Move, Publisher UN Studio & Goose Press, 1999
10. 최정석, 건축표면이 형성하는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접수 : 2005. 4. 30>